

새로 나온 책



▲불자로 태어나라(이동성 지음)= 신행을 오래했지만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을 위한 교육지침서.

20여 년간 포교의 현장에서 활동한 이동성(제천 장엄사 포교원장)씨가 펴낸 이 책은 불교교리와 교육체계를 불성개발훈련에 맞춰 '현대인의 고통과 불교'를 시작으로 '불자가 되는 길' '사찰의 전각과 불보살의 의미' '보살의 삶과 인생의 회향' 까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우석역. 1권. 값 5천원.



▲진리의 덩체인 부처님(안영일 역)= 초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불교교리만을 엮은 책.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서부터 경전의 결집과 교설, 종단(파)의 성립, 한국·인도·중국의 불교역사, <묘법연화경>의 진실 등이 수록돼 있다. 22년간 천태종 신도로서 신행해 온 안영일씨(부산 삼광사 신도회장)가 엮은 이 책은 현대사상, 상월스님 일생, 구인사 소개를 비롯 불교인 연담과 수행이야기도 곁들여 있다. 여래역. 값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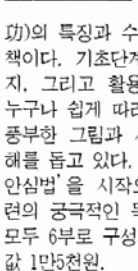


▲무염국사(한정섭 지음)=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성주산문을 개산한 무염국사(801~888)의 재가 및 출가생활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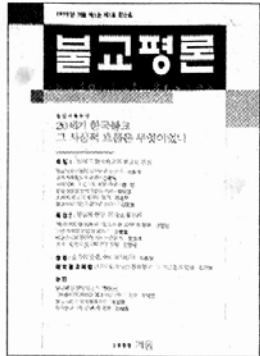
중국 유학, 포교와 불사 등의 행장을 적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총반 보령에 위치한 성주사지 무염국사의 비문을 해석한 것이다. 저자는 "최치원의 비문과 무염선사 비문을 중심으로 무염국사의 선사상과 행장을 올바르게 조명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말했다. 불교통신교육원 역. 값 8천원.



▲불가기공(영우스님 지음)= 기운을 모으는 동작이나 행위 없이도 기운이 나오는 근원을 마음으로 보는 불가기공(佛家氣功)의 특징과 수련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기초단계에서 중급단계까지, 그리고 활용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익힐 수 있도록 풍부한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1부 '안심을 통한 안심법'을 시작으로 불가기공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기까지 모두 6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역. 값 1만5천원.



화두를 중심으로 선의 세계를 살핀 <대도무문>(불교출판사 역)이 나왔다.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가 펴낸 이 책은 <역암록>의 대표적 공안 '화연무성(廓然無聖)'과 <무문관>의 '조구구자(趙州狗子)'를 시작으로 선승들의 공안 27가지를 풀이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선승의 공안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태고 보우국사의 '대전수후(波前水後-조주는 물결 앞, 물 뒤에 있다)'가 바로 그것. 우리의 선은 우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저자는 "이 책을 계기로 우리의 얼굴을 한 우리의 불교, 우리 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값 8천원.



불교 비평문화의 열린마당 '기대'

<불교평론>은 창간 권두언에서 활발한 비평문화의 불교의 새로운 비평을 제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시대의 불교는 과거의 권위에 억압받지 않는 비판 정신과 도전 정신에 의해 열려져 나갈 것이다. 세계가 불교를 향해 끊임 없이 던져오는 새로운 질문에 응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논쟁을 거쳐 정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창간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불교평론> 창간호에는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불교 비평 문화의 고국화시대가 열리는가, 교계 비평 문화의 부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불교 제문제에 전위적 비평을 표방한 <불교평론>(발행인 정우석) 창간호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불교평론>은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정치·사회현상을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비판·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교학을 비롯 문화·사상에 대한 치열한 논쟁 문화가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평론> 창간과 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거대한 담론이 열리는 서점' '불교사상 배출의 요람' 등으로 평가하고, 불교 비평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불교평론> 창간은 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는 잡지의 창간보다 더욱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계간 '불교평론' 창간호 나왔다

반성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논제로 다양하고 활발한 논쟁의 장을 열고 있다.

좌담 '20세기 한국불교, 그 사상적 흐름은 무엇인가'와 특집으로 다룬 '20세기 한국불교의 회고와 반성' '불교학 연구 이대로 좋은가'는 <불교평론>의 색깔을 대변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중법스님을 비롯 동국대 정병조·이봉준교수, 서울대 최병헌 교수가 발인 기획좌담에서는 20세기 100년간 한국불교의 사상적 흐름과 정체성을 일제 강점기, 45년 이후 해방공간, 54년부터 62년까지 불교회화운동, 70년대 불교의 현대

불교사상 현대적 고찰
역사·정치·사회현상
불교적 시각으로 재해석

화, 80년대 민중불교운동, 90년대 단점논쟁 등 시대적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있다. 특집기사 가운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글은 토론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계의 토론부재 현상을 꼬집은 '논쟁 부재와 긴장된 글쓰기'와 한국불교학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한 경전중심의 불교학 연구를 강조한 '영국·일본의 불교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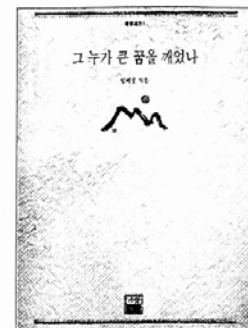
연구동향' 등이다. 또 승가의 유래와 정신, 교단으로서의 승가, 승보로서의 승가를 정점으로 다룬 '승가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와, 불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윤리학적 키문의 주장을 비판한 '불교에 인권이 있는가'도 읽어볼 만하다. 이밖에 '시민정치의 확대와 불교시민운동의 전망' '불교사상과 국제평화주의' '한국현대사의 선(禪)적 경향', '불교에서 보는 철학, 철학에서 보는 불교' 등은 현대불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불교평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30부터 50대까지의 불교학 연구자 및 불교활동가들을 필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제문제에 대한 논쟁을 소중히 여기는 필자들이 향후 불교사상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출판사의 복안이다.

한국불교 역사속에서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를 날카롭게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비평지로 출발한 <불교평론>, 생산적 논쟁의 장으로 발전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효봉스님 판사출신 아니다"

혜봉스님 '종정열전'서 주장



근현대 불교사를 표상하는 역대 종정스님의 행장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종정열전>(전 2권·가람기획 역)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전기학을 연구하고 있는 혜봉스님(이천 지족암)은 이 책을 통해 일제시대 조선인 최초로 판사를 지내다가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효봉스님의 이력이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기록이 총망라돼 있는 '조선총독부 직일록'과 '한국법관사' 등의 관련문헌을 조사한 결과 효봉스님(1888-1966)의 속명인 이찬형이 판사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이와 함께 혜봉스님은 좌탈로 유명한 한암스님에 관한 새로운 사실 3가지를 제기했다. 출가 연도가 탄해전 막바지에 이케다 경무국장이 한암스님에게 '진정의 승패'를 물었다는 <한암집> <한암일보> 등의 기록은 이케다 재임기간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27년간 오대산에서 한암파도 벗어나지 않았다. 불출동구(不出洞口)의 설 또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방후 조계종의 종정예우가 정면하지 못함도 지적했다. 효봉스님을 통합 종단의 초대종정으로 인정하면서 광복 직후의 박영성스님과 정화후 동산·석우스님 등을 종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혜봉스님은 한영(1945.9)→한암(1948.6)→만암(1951.6)→동산(1954.11)→석우(1955.8)→효봉(1958.4)→동산(1958.8)→효봉(1962.4)→창담(1966.11)→고암(1967.7)→서옹(1974.8)→성철(1981.1)→서암(1993.11)→월하(1994.5)→해암(1999.4)스님 순으로 기록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의 또다른 성과는 그동안 묻혀 있었던 고승의 행장을 최초로 밝혀냈다는 것. 임제종 종정 경운스님과 환응·동선·해당·용허스님 등에 관한 행장을 당시 잡지와 관련서적을 뒤지고 행적을 일일이 찾아 밝혀냈다.

종정열전 1권 <그 누가 큰 공을 깨었나>는 해방 직후 한영스님으로부터 만암, 석우, 동산, 효봉, 창담, 고암, 서옹, 성철, 서암, 월하 등을 거쳐 해암스님에 이르는 종정 12명의 행장을 담고 있다. 2권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처법>은 원종의 초대종정을 지낸 회광스님을 비롯 경운, 환응, 동선, 해당, 용허, 해월, 민공, 한암스님 등 9명의 일제시대 고승의 전기를 실었다. 값 1권 1만1천원, 2권 9천원.

절망과 희망사이에 선 인간상

정찬주 소설집 '김동사에서 나비를 보다'



작가 정찬주씨가 처음으로 창작집 <김동사에서 나비를 보다>(해들누리 역)를 내놓았다. 사실을 기초로 한 일종의 '다큐소설'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겠다는 것이 창작의 도다.

포제작인 중편 <김동사에서 나비를 보다>는 부도 직전의 중소기업 출판사 사장인 주인공 강현이 은행의 약속어음을 막지 못하고 쇠괴랑이나, 죽음이냐 갈림 길에서 어머니의 체취가 스며있는 김동

사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동사를 찾아온 객들과의 생활과 주지 스님과의 만남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가족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 아버지 범성스님을 찾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 범성스님은 "김동사가 할 이야기를 다했다"며 발길을 돌린다. 절망의 끝에 선 주인공은 그 순간, 지친 날개를 접고 부처님 이마에 내려앉아 쉬고 있는 나비를 통해 자신이 헛꿈에 취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은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헛꿈을 버리는 작은 깨달음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작은 깨달음도 헛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탈이다"며 "가열한 번뇌가 삶의 힘이 된다"고 말한다.

포제작 <김동사에서 나비를 보다>가 일주문 밖 저자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또다른 중편 <원인전장지곡>은 일주문 안의 이야기이다.

단편 <포옹>은 80년 광주항쟁 때 책수금을 하러 갔다가 진압군에게 잡힌 주인공이 중국집 딸의 도움으로 살아나 그녀와 결혼, 별거, 재결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값 7천원.

대도무문 정태혁 지음

선승들 공안 27가지 자세히 풀어



화두를 중심으로 선의 세계를 살핀 <대도무문>(불교출판사 역)이 나왔다.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가 펴낸 이 책은 <역암록>의 대표적 공안 '화연무성(廓然無聖)'과 <무문관>의 '조구구자(趙州狗子)'를 시작으로 선승들의 공안 27가지를 풀이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선승의 공안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태고 보우국사의 '대전수후(波前水後-조주는 물결 앞, 물 뒤에 있다)'가 바로 그것. 우리의 선은 우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저자는 "이 책을 계기로 우리의 얼굴을 한 우리의 불교, 우리 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값 8천원.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법 진현종 지음

禪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로운 삶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런 컴퓨터 게임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몰라 막막해한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참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는 참지혜를 들려주는 <네글자에 담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책이있는마음 역)이 나왔다. 불립문자, 이심전심, 인과응보를 비롯 모두 88가지 선 이야기 속에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역은 진현종씨는 "선어의 사전적 설명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옛 선사들의 가르침과 참 뜻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야권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민행·하버드에서 회개까지	현 각	열림원
2	금강경 강해	도 율	통나무
3	종경	원 성	이레
4	원효어록 100선	이영일	불교출판사
5	영기천도	우 룡	효림
6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인호	여백
7	달리리리리 예수를 말한다	류시화	나무심는사람
8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9	죽음을 준비합니다	현 장	우리
10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우사

도서 안내: (02)737-0695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물든 바, 진 치의 어둠도 없이 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종로구 경치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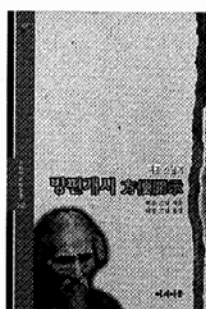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14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869년 세수 12세 승방 10세로 운거사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清末) 이후 쇠퇴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歩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였고, 56세 때 찾간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었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86 변형 300쪽 / 값 6,000원